

한국 여성의 유방엑스선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신념 모형을 중심으로

함 옥 경(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영문초록
IV. 논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25.6%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그 중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율은 1983년 이후 280% 나 증가하였으며, 현재 발생하는 전체 여성암의 16.1%를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유방암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American Cancer Society(2002)에서는 40세 이상의 여성에게 매년 유방엑스선 촬영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여성에게는 30세 이후에 유방암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한국의 역학자와 방사선과 의사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30세 이후에 기본 유방엑스선 촬영을 하도록 권유하며, 35세 이후에는 2년에 1회의

유방엑스선 촬영을 권유하고 있다(Kim et al., 1996).

서구의 경우 47.4%에서 79.1% 정도의 여성들이 유방엑스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Han et al., 2000; Maxwell et al., 2000; Wismer et al., 1998), 보건 의식행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 여성의 14%, 농촌 여성의 10% 만이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999), 외국에 비하여 유방암 조기검진 행위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신념 모형(Health Belief Model)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여성의 유방암 촬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져 왔다(Miller & Champion, 1997; Thomas et al., 1996). 건강신념 모형은 기대가치 이론으로 새로운 행위를 시도하거나 행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의 수행으로 인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와, 개인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그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Strecher & Rosenstock, 1997). 다시 말하면, 개인이 특정질병

에 감수성이 있다고 믿으며(인지된 감수성), 그 특정 질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지하고(인지된 심각성), 또한 행위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이익을 감지하며(인지된 이익), 특정행위를 수행하는데 동반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하고(인지된 장애), 인지된 이익이 장애를 능가할 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건강신념 모델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나중에 추가되었다(Rosenstock et al., 1988). 많은 연구들에서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인간의 건강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신념 모형이 건강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Champion, 1992; Choi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여성의 유방엑스선 촬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한국여성의 유방 엑스선 촬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국여성의 믿음과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 엑스선 촬영군과 유방엑스선 비촬영군 간에 건강신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유방엑스선 촬영군과 비촬영군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 2) 유방엑스선 촬영군과 비촬영군간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을 비교한다.
- 3) 일반적 특성,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엑스선 촬영행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시도된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의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서울시내와 서울근교 도시의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유방 엑스선 촬영을 마친 30세 이상 여성을 유방엑스선 촬영군으로, 같은 종합병원 외래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여성 중 30세 이상이며, 이전에 유방엑스선을 한번도 촬영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을 비촬영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310명이 설문을 완성하였다. 자가보고양식에 의한 자료수집이 혼란된 자료수집 요원에 의하여 2002년 2월 12~2002년 3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하였고, 전문가 집단(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하여 내용타당도가 검토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으로는 일반적 특성,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모형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건강신념모형의 구성요소로는 인지된 감수성 3문항, 인지된 심각성 5문항, 인지된 이익 4문항, 인지된 장애 6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5점 척도의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1점은 '매우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69 ~ .96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두 집단의 건강신념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0)

변수	구분	촬영군		비촬영군 n(%)	x ² (p)
		n(%)	n(%)		
연령	≤ 39	56(36.1)	89(57.4)	24.73(.000)	
	40-49	61(39.4)	40(25.8)		
	50-59	31(20.0)	11(7.1)		
	≥ 60	7(4.5)	14(9.0)		
연수입	< 1200만원	5(3.4)	19(12.8)	9.82(.081)	
	1200-2400만원	32(21.8)	30(20.3)		
	2400-3600만원	45(30.6)	36(24.3)		
	3600-4800만원	27(18.4)	23(15.5)		
	4800-6000만원	17(11.6)	20(13.5)		
	> 6000만원	21(14.3)	20(13.5)		
교육수준	초등 졸	7(4.5)	6(3.9)	6.62(.358)	
	중졸	18(11.6)	14(9.1)		
	고졸	56(36.1)	51(33.1)		
	초대졸	15(9.7)	29(18.8)		
	대졸	54(34.8)	48(31.2)		
	대학원 이상	5(3.2)	6(3.8)		
결혼상태	기혼	139(89.7)	127(81.9)	4.76(.446)	
	그 외(이혼/사별/미혼 등)	16(10.3)	28(18.1)		
직업	정규직	32(20.6)	45(29.0)	4.63(.201)	
	임시직	8(5.2)	12(7.7)		
	가정주부	93(60.0)	82(52.9)		
	그 외	22(14.2)	16(10.3)		

대상자의 연령은 30세에서 69세 사이였고, 촬영군은 40-49세의 여성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비촬영군은 39세 이하가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두 그룹간에 연령의 구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연수입은 약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의 여성이 촬영군과 비촬영군 각각 30.6%,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군 모두 약 50% 대상자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90%의 여성이 기혼이었고, 60%는 가정주부였다. 연령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있어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표 1〉.

2. 대상자의 유방양성종양 질병력과 유방암 가족력 및 유방자가검진 경험

대상자의 유방양성종양 질병력과 유방암 가족력, 친구의 유방암 질병력 및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경험을 두 군간에 비교분석하였다. 촬영군 여성의 7.7%, 비촬영군 여성의 4.5%가 유방양성 종양 질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촬영군의 5.2%, 비촬영군의 1.3%가 유방암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방양성종양 질병력과 유방암 가족력 모두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반면에 친구의 유방암 질병력에 대하여는 촬영군 여성의 24.5%, 비촬영군 여성의 13.6%가 친구 중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5). 한편 유방자가검진 경험과 관련해서는 촬영군의 60.0%, 비촬영군의 21.3%가 이전에 최소한 한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유방엑스선 촬영을 경험한 여성일수록 유방자가검

〈표 2〉 대상자의 유방질병력과 유방암 가족력 및 유방자가검진 경험

변수	촬영군		비촬영군 n(%)	x ² or Fisher's Exact(p)
	n(%)	n(%)		
유방 양성종양 질병력	12(7.74)	7(4.52)		1.98(.424)
유방암 가족력	8(5.16)	2(1.29)		1.34(.447)
친구의 유방암 질병력	38(24.52)	21(13.55)		5.92(.015)
유방자가검진 경험	79(50.97)	33(21.29)		26.67(.000)

〈표 3〉 대상자의 지식과 건강신념

변수	활영군	비활영군	t(p)
	Mean(SD)	Mean(SD)	
유방암 관련 지식	8.79(2.8)	8.04(2.5)	2.69(.007)
인지된 감수성	2.68(.65)	2.53(.59)	2.08(.038)
인지된 심각성	3.10(.56)	3.16(.59)	-.88(.382)
인지된 이익	3.69(.52)	3.68(.53)	.18(.859)
인지된 장애	2.70(.40)	2.74(.48)	-.94(.348)
자기효능감	3.30(.77)	2.80(.66)	6.04(.000)

진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표 2〉.

3. 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유방암의 경향, 유방암의 위험요인, 유방암 조기검진 행위 권고기준, 조기 검진 행위의 의의 등을 포함하는 유방암과 유방암 조기검진 관련 지식을 12문항 질문하였다. 활영군 여성의 유방암과 유방암 조기검진 관련 지식평균이 8.79(± 2.38)로 비활영군(8.04± 2.5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Range 0-12, $p=.007$). 인지된 감수성으로는 미래에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과 다른 여성에 비하여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10년 내에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활영군의 인지된 감수성 평균이 2.68(± .65)로 비활영군(2.53± .59)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38$). 그 외에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의 평균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그러나 각 세부문항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인지된 장애 요인 중 '유방엑스선 촬영시 상의를 벗는 것이 창피하다'와 '유방 엑스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장애요인이 비활영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의사의 권유 부재, 통증, 비용, 시간부족 등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방 엑스선 촬영을 정기적으로 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활영군의 자기효능감 평균이 3.30(±.77)으로 비활영군(2.80± .66)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표 3〉.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령, 수입, 지식과 건강신념 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과 수입, 연령과 인지된 장애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 = -.16 \sim -.23$, $p = < .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엑스선 촬영과 관련된 장애가 증가하였다. 수입과 지식, 수입과 자기효능감, 지식과 인지된 이익, 지식과 자기효능감, 인지된 감수성과 자기효능감, 인지된 이익과 자기효능감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 = .14 \sim .34$, p

〈표 4〉 연령, 수입, 지식, 건강신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연령	수입	지식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	자기효능감
연령	1.00							
수입	-.16 **	1.00						
지식	.01	.14 *	1.00					
인지된 감수성	-.09	.06	.11	1.00				
인지된 심각성	-.02	-.05	-.00	.02	1.00			
인지된 이익	.08	.07	.34 **	.10	.16 **	1.00		
인지된 장애	-.23 **	-.09	-.08	.05	.27 **	-.04	1.00	
자기효능감	.09	.14 *	.25 **	.19 **	-.11	.16 **	-.24 **	1.0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05). 또한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이익,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장애 사이에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 = .16 \sim .27, p < .01$), 유방암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길수록 유방엑스선 촬영으로 인한 조기검진의 이익을 더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유방 엑스선 촬영과 관련된 장애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장애와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인지된 장애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r = -.24, p < .01$)<표 4).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유방엑스선 촬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한 예로, 그 동안 건강신념을 이용하여 건강행위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연구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엑스선 촬영군과 비촬영군간에 건강신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과거의 몇몇 연구에서는 유방엑스선 촬영행위와 연령, 교육수준, 수입, 결혼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Fredman et al., 1999; Maxwe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연령만이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촬영군 여성의 연령이 더 낮았으며,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방엑스선 촬영군의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촬영관련 지식이 비촬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hoi et al., 2001; Maxwell et al., 1997). 건강신념 모형의 변수들 중에는 인지된 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방엑스선을 촬영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본인이 유방암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유방엑스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인지된 감수성과 유방엑스선 촬영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Choi 등(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Maxwell 등(1998)과 Holm 등(1999)이 인지된 감수성과 유방엑스선 촬영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Choi & Oh, 1998; Lee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유방엑스선 촬영행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 등은 도시 여성의 유방엑스선 촬영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된 심각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Holm et al., 1999; Maxwell et al., 1998), Holm에 의하면 모든 여성들이 이미 유방암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인지된 심각성에 있어 대상자들 사이에 변이가 적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인지된 이익과 인지된 장애가 유방엑스선 촬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Choi et al., 2001; Coyne et al., 1992; Maxwell et al., 1998), 본 연구결과에서는 두 군의 인지된 이익 평균이 3.68 - 3.69로(Range, 1-5)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두 그룹 모두 유방엑스선 촬영으로 인해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 50% 정도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 대상자의 높은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도 인지된 이익과 교육수준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r = .34, p < .01$).

인지된 장애요인으로는 유방엑스선 촬영시의 통증, 방사선 노출, 촬영비용 등이 주요 장애로 확인되었으나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지된 장애 중 '유방엑스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촬영군의 유방 조기검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0$).

연구결과 몇 개의 변수들이 유방엑스선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는데, 연구의 방법이 유방엑스선 촬영행위와 각 변수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단면 연구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인지된 감수성과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유방엑스선 촬영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유방엑스선 촬영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인지된 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증가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방암 촬영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형의 각 변수들과 유방엑스선 촬영의도를 파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들 중 실제로 유방엑스선 촬영에 참여한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코호트 연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여성들의 유방엑스선 검진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방엑스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관련 지식 및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을 제언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여성의 유방엑스선 촬영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과 인근 시지역 종합병원 세 곳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유방엑스선 촬영을 마친 여성을 촬영군으로 같은 종합병원 외래에 진찰을 받기 위해 내원한 여성 중 유방엑스선 촬영 경험이 없는 여성을 비촬영군으로 하여, 총 310명의 여성으로부터 일반적 특성과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관련 지식, 건강신념 모형의 각 변수들과 관련된 인식을 파악하고자 자가보고 양식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연령은 촬영군은 40세 - 49세가 39.4%로 가장 높았고, 비촬영군은 39세 이하가 57.4%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두 군간에 연령 구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촬영군의 연령이 더 낮았다($p = .000$).
- 2)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관련 지식,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평균이 비촬영군에 비하여 촬영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 < .05$), 그 외에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 3)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 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연령은 인지된 장애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여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인지된 장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1$), 수입은 지식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5$), 지식은 인지된 이익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연구결과 연령이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는 인지된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유방암과 유방엑스선 관련 지식과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유방암 조기검진 행위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American Cancer Society(2002). Prevention & Early Detection. April 16, 2002, from <http://www.camcer.org>

Champion, V.L.(1992). Compliance with guidelines for mammography screening. *Cancer Detect Prev*, 16, 253-258.

Choi, E.Y., & Oh, H.E.(1998).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sex role identity and self-efficacy in middle aged women. *J. Korean Society of Maternal & Child Health*, 2, 181-193.

Choi, J.S., Park, J.Y., & Han, C.H.(2001) The behavioral and educ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breast self-examination and breast cancer screening. *J.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 61-78.

Coyne, C.A., Hohman, K., & Levinson, A.(1992). Reaching special populations with breast and cervical cancer public education. *J. Cancer Educ*, 7, 2293-303.

Fredman, L., Sexton, M., Cui, Y., Althuis,

- M., Wehren, L., & Hornbeck, P. et al.(1999).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screening mammography among women aged 50 and older. *Preventive Medicine*, 28, 407-417.
- Han, Y., & Williams, R.D., & Harrison, R. A.(2000). Breast cancer screening knoweldge,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Korean American women. *Oncology Nursing Forum*, 27, 1585-1589.
- Holm, C.J., Frank, D.I., & Curtain, J. (1999) Health beliefs, health locus of control, and womens mammography behavior. *Cancer Nursing*, 22, 149-1156.
-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9).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health among Koreans. Seoul, Korea: Author.
-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2). Cancer Information. April, 2002, from aggregated database, <http://www.mohw.go.k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03). Death statistics. Retrieved November 28, 2003, from <http://www.nso.go.kr>
- Kim, I. C., & Moon, H. L.(1996). Breast cancer early detection strategies. *J. Korean Medical Association*, 39, 937-942.
- Lee, M.Y., Choi, M.H., Chung, Y.K., & Her, E.H.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J. Korean Community Nursing*, 10, 140-153.
- Maxwell, A.E., Bastani, R., & Warda, U.S.(1997). Breast cancer screening and related attitudes among Filipino-American women.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6 (9), 719-726.
- Maxwell, A.E., Bastani, R., & Warda, U.S.(1998). Mammography utilization and related attitudes among Korean American women. *Women & Health*, 27, 89-107.
- Maxwell, A.E., Bastani, R., & Warda, U.S.(2000). Demographic predictors of cancer screening among Filipino and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m J Prev Med*, 18 (1), 62-68.
- Miller, A.M., & Champion, V.L.(1997). Attitudes about breast cancer and mammography: Racial, income, and educational differences. *Women & Health*, 26, 41-63.
- Rosenstock, I.M., Strecher, V.J., & Becker, M.H.(1988).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 (2), 175-183.
- Strecher, V.J., & Rosenstock, I.M.(1997). The Health Belief Model. In K. Glanz, F. M. Lewis, & B. K. Romer (Ed).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41-59). San Fransisco: Jossey-Bass.
- Thomas, L.R., Fox, S.A., Leake, B.G., & Roetzheim, R.G.(1996). The effects of health beliefs on screening mammography utilization among a diverse sample of older women. *Women & Health*, 24, 77-94.
- Wismer, B.A., Moskowitz, J.M., Chen, A.M., Kang, S.H., Novotny, T.E., & Min, K., et al.(1998). Mammography and clinical breast examination among Korean American women in two California counties. *Prev Med*, 27, 144-151.

ABSTRACT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ammography Screening Behavior Women : Use of Health Belief Model

Ham, Ok Kyung(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mammography screening behavior of Korean women using components of Health Belief Model. A total of 310 women aged 30 and older participated in the study. Of the participants, 155 women who obtained a mammogram dur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were classified as the mammography group and the other 155 who had never had a mammogram were classified as the non-mammography group. The researcher developed instrument used in the study, which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and questions measuring the concepts of the HBM components. Trained data collectors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employing a face-to-face survey method in the waiting areas of hospitals and health promotion center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age, knowledge,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self-efficacy were identified as the significant variables in explaining Korean women's mammography screening behavior, whereas,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barrier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mammography screening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guid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mammography utilization among Korean women.

Key word : Mammography, Health Belief Model, Women